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예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2시
금요집회 (밤) 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예배 오전(3부) 2시
저녁예배 7시30분
수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5년 1월 25일 (제778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 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 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컬 럼

진실 하나면 된다

지난 5일 청주예수중심교회 이진예배를 드리러 그곳에 갔다. 예배를 드린 후에 모든 성도들과 함께 식사하기 위해 교회 바로 옆 식당인 생대구탕 집으로 갔다.

참석한 숫자가 많다보니 교회 측에서 미리 성도들에게 티켓을 나눠준 모양이다. 내가 식당에 들어가니 주인이 나에게도 티켓을 달라고 했다. 나는 받질 못했기에 '미안하다, 나중에 계산하겠다.' 하고 들어갔다. 우리 모두는 식사를 참 맛있게 했다.

식사 후 나는 청주교회 목사를 불러놓고 말했다. "이 식당과 계약할 때 음식 값을 깎았나?" 그랬더니 청주교회 목사가 원래는 일인당 15000원인데 13000원에 하기로 했다고 한다. 나는 "내가 티켓을 안 냈으니 내 것을 꼭 계산하고, 만일 이 음식 값을 계산할 때 100만원이든 200만원에 우수리가 붙거든 그걸 깎아달라고 하지 마라. 처음 약속한 대로 잔돈까지 온전히 계산해라.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잃는다. 진실은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거란다." 라고 말했다. 이것은 청주교회 목사만 들으라고 한 말이 아니다. 함께 식사한 많은 목사들도 듣고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였다.

청주교회 목사가 내 말대로 실천한 모양이다. 내가 식당을 나오기 전에 식당주인에게 음식이 너무 맛있다고 말하며, 내 음식 값을 받았느냐고 물었더니 주인이 다 계산했다며 '안 그러셔도 되는데' 라고 했다. 나는 "당연히 받으셔야죠." 하면서 "목사 입은 입이고, 성도들의 입은 주둥이가 아니기에 똑같은 것을 먹었다."고 하자 식당주인이 막 웃어댄다. 나는 식당주인의 손을 잡고 "예수 믿으세요. 바로 옆 교회입니다. 나는 서울교회에 있으니 나를 만나고 싶으면 서울로 오세요. 언제든 만나드리지요." 라고 했다. 그랬더니 주인 하는 말이 "이런 목사님이 있는 교회라면 나가겠다."고 했다. 진실 하나로 사람을 얻었다.

그렇다. 진실은 우주를 초월하는 만국공동의 화폐다. 이것이 내가 '진실'에 대한 설교를 세 번 보여준 이유다. 진실 하나면 된다.

스타가 되려면 감독의 말을 들어라

지난 16일 KBS88체육관에서 거행된 제 29기 목사임직예배는 2011년 장성 예루살렘기도원에서 거행되었던 27, 28기 목사임직예배 이후 무려 4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임한 양떼를 위해 목숨을 다해야 하는 선한 목자의 길이 얼마나 엄중한지 깨닫는 시간이었다.

본문 말씀으로 사회자가 봉독한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가운데 11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본을 보인 15절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임한 양떼를 돌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샅을 바래서도 안 되고, 자신의 영광을 구해서도 안 됩니다. 오로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앞세운 채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스타가 되려면 감독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배우나 스포츠 선수들이 인정을 받고 성공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따져볼 것도 없이 감독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물에 들어가려면 들어가고 불속을 뛰어들려면 뛰어들어야 합니다. 안타를 칠 자신이 있어도 희생번트를 하라 하면 해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선포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어떠할지 미리 단단한 각오와 자세가 아니고서는 아예 꿈도 꾸지 말라는 당부입니다.

무론대소하고 심판의 그날 여러분이나 나나 주 앞에 서야 합니다. 나는 오직 그날 주님께 물음 받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30년을 출발함에 있어 지난 시간의 헛목은 버리고 오직 앞의 새로운 궤도를 향해 달려가고자 합니다. 부디 오늘 하나님과 여



제 29회 목사 임직예배(2015. 1. 16, KBS88체육관)

말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한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더 무엇을 말하라. 모든 논란은 여기에서 종지부를 찍는다. 하나님의 종이 추구해야 할 궁극점이 무엇인지 딱 답을 제시해주셨기 때문이다.

목사님의 메시지는 이에 더욱 확실한 방점을 찍고 있었다. "하나님의 일은 직업이 아닙니다. 우리는 직업 이상의 일, 곧 사명을 다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심부름 사(使)에, 목숨명(命)입니다. 곧 부르심에 목숨을 다해야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원하여 종의 길을 가려는 여러분들은 철저한 순종과 철저한 희생의

야 합니다. 감독의 말을 무시해서는 결코 스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감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결코 영적 스타가 될 수 없습니다. 성공적인 목회,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감독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제발 부탁인데 그럴 자신이 없는 사람은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그만 두는 게 지혜로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망대를 세우고자 하면 먼저 그 예산을 따져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도중에 그만두면 웃음거리만 될 뿐입니다. 또 이만만의 군사로 쳐들어오는 적을 일만의 군사로 맞서야 할 때 이길 자신이 없으면 미리 화친을 청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나의 제자가 되려면 부모, 처자, 형제자매, 나아가

러 증인들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한 맹세를 뺏속 깊이 새겨 주 앞에 섰을 때 모두가 칭찬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6명의 신임 목사들은 결기에 찬 표정과 우렁찬 목소리로 아멘을 외치는 모습이 었다. 단에 오른 교단의 목회자들과 장로들이 함께 신임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장면은 장엄한 출정식을 방불케 하는 엄숙함이 느껴졌다. 또한 교단 목회자들과 장로들이 신임목사의 임직을 축하하며 악수하고 깊이 포옹하는 장면은 참으로 감동적이었다. 목사님 말씀처럼, 이제 고생문이 훤한 그들이지만, 맑은 일에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의 주인공들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2015년 이초석 목사 코스타리카 집회 1. 19(월) ~ 31(토) 산호세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눅10:17~21)



왜 망하고 왜 속는지 아는가?

방배동은 지금은 강남땅이지만 제가 어릴 때만해도 농사짓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70년대쯤부터 여기에 개발붐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자고나면 땅값이 천정부지로 뛰었습니다. 전국에서 땅을 사려는 사람들이 줄지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평생 농사나 짓던 동네 어르신들이 돈이 생긴다는 말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곳에 사기꾼은 빠질 리 없죠. 멋지게 차려입은 남자들이 동네 어르신들을 깎듯이 모시고, 선물도 사드리면서 달라붙었습니다. 평생 제대로 대접 한번 못받던 동네 어르신들은 자기에게 너무 잘해주는 이들을 아들보다 낫다며 철썩 같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돈 벌게 해준다고 내민 서류에 인감도장을 찍었습니다. 까막눈이라 글을 모르니 그들의 말만 믿은 겁니다. 그래서 동네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사기를 당해 땅을 빼앗긴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글자를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배워야 합니다. 모르면 눈은 떴지만 소경이요, 귀는 있지만 귀머거리인 겁니다. 한 달에 절반을 외국에서 지내는 제게 절실한 것은 외국어, 특히 영어입니다. 영어를 모르니까 통역관이 없으면 소경이고 귀머거리가 됩니다.

망하고 속지 않으려면 영적지식, 혼적지식, 육적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영적인 지식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을 이끌어 내라”(사 43:8)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

에는 주님이 서 계셨고, 마치 해동된 후 자갈 밑에 게들이 기어 나오듯 병자들이 줄줄이 나와 목발을 던지고 휠체어에서 일어나는 등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구원만 얻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나라 왕권을 차지하는 자들로 가르쳐야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미 구원에 대해서는 너무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마 12:28)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이런 비유가 어떨까요? 대학합격은 확실한데 4년간

학금을 받느냐, 아니면 입학금만 장학금으로 받느냐 뭐 이런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 왕권을 차지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르치는 목자들은 많지만, 왕권을 차지하라고 가르치는 목자는 드뭅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왕 자리가 너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걸 잡아야 합니다. 차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자원적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믿음을 말합니다. 다음은 구원적 믿음이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로 초보적 신앙을 말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로 인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진 정도의 믿음을 일컫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믿음의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은사적 믿음입니다. 이는 믿는 자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는 믿음, 저 산을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옮길 것이라는 큰 믿음을 말합니다. 이는 누구나 소유한 믿음이 아닙니다. 장성한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적 믿음의 단계에 만족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간신히 구원받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은사적 믿음의 단계에 이르러야 합니다. 왜냐고요? 은사적 믿음이 있어야 주님의 지상명령인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18~20). 주님은 죽기까지 순종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넘겨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권세를 우리에게 이양하

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눅



총회장 이초석 목사

22:29). 예수님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과업과 합

계 과업달성을 위해 당신의 권세와 능력도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예전에 왕이 전쟁에 나가는 장수에게 보검을 넘겨주듯 말입니다.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막16:17~18). 만왕의 왕 주님이 주신 보검, 곧 우리에게 주신 권능을 가지고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시각적인 효과가 청각적인 효과보다 크기 때문입니다(요4:48).

이 권능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성경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행1:8)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회개하고 사모하면 성령을 받게 되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권능으로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귀

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과 70인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전 세계에 다니며 구령(敎靈)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능력의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냉담한 자라도 목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성이 나타나면 다들 두 손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 들이게 됩니다.

육적인 소경이 소경이 아니라 영적인 소경이 진짜 소경이다

여러분, 왜 망하고 왜 속습니까? 구원적 믿음의 지식은 있는데, 은사적 믿음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에 대해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난하고, 병들고, 마귀에게 억눌려 살고, 귀신의 놀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심방 가는 것 좋습니다. 힘든 자나 병든 자를 찾아가 위로 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말로 위로한다고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그들의 병을 고쳐준다면요? 여기고 같은 그들의 문제를 예수 이름으로 무너뜨려준다면요? 더 나아가 우리가 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줄 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귀신을 쫓으면 잘못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당했던 것처럼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밀까부르듯 까부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굳세어야 합니다. 우리 교단이 앞으로 30년 동안 해야 할 일은, 과거 30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주님이 주신 권세를 무기 삼아 하나님의 자녀를 못살게 하는 마귀와 악의 영, 그리고 그들의 졸개인 귀신을 추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더 많이 기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병과 장교는 훈련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막9:29)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한다면 그 날 주님과 함께 한 상에서 먹고 마시며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날을 그리며 믿음의 군사로 살아봅시다. 할렐루야!

청각적인 효과보다 시각적인 효과가 크다

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눅22:28~32).

이 말씀은 1988년 기도원에서 필시콜레 박사를 모시고 집회를 하던 중, 귀신을 쫓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모두가 저를 정죄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방에 들어가 이 집회 안 하겠다며 방성대곡했습니다. 그때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로 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힘을 얻고 집회에 다시 나갔는데 해 주위에 무지개가 둘러싸고 있었고, 기도할 때 좌측 산 쪽에서 천사가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성전 앞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5000원)
(060)700-0688

은행계좌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 예수중심교회



맑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지나온 30년은 이 초석 목사님과 전 성도가 한마음 한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성령의 불과 같은 역사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힘쓰고 애쓴 영광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특히 목사님의 열정과 헌신으로 가는 곳마다 수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저도 그 열매 중의 하나입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어린 나이에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하고서도 세상 속에서 방황하다가 인생의 쓰라린 실패를 경험하고, 일본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1998년

고베집회에서 목사님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잃어버렸던 꿈을 되찾았고, 주의 종이 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 만날 때가 좋고, 멀리서 볼 때가 아름다운 경우가 많은데 목사님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고, 가까이서 볼 때가 더 아름다운 분입니다. 목사님의 저서 “의욕을 상실한 자에게서 지휘봉을 뺏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지휘봉을 뺏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목사님도 사랑 때문에 당신의 생각을 버리시는 분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돈 때문에 많은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물질에 대한 욕심

이나 사심이 없는 분입니다. 교단에서 물질을 지원하여 세운 교회를 통째로 들고 나간 목회자에게도 싫은 소리 한마디 안하시고, 송사를 제기 한 적도 없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직접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봉사가 눈을 떴을 때보다 눈을 뜨지 못했을 때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예배시간에 안수를 두 번씩이나 했는 데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제가 괜히 마음이 불안하고 좌불안석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얼굴을 보니 전혀 그런 기색이 없고 오히려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때 깨달은 것이 “아, 저분은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서 공급해주시는 힘으로 일하시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에 참 믿음이 무

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며 내려놓지를 못하고,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서슴없이 당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겸손한 종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인생을 맡기고 따라갈 수 있고, 맑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복종의 복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30년도 더욱 더 열정을 가지고 목사님의 사역과 교단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다짐합니다.

서울예수중심교회 상화평 목사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어린 시절 주일학교를 다니다가 시험이 들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았습니다. 그 후 저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핍박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셔서 저를 다시 불러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집사님의 친구가 예수중심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우리를 인도하여 교회를 같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총회장 목사님을 통하여 많은 은혜를 받았고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목사님을 닮은 종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하

고 신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아주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강인한 훈련을 받은 병사만이 좋은 병사가 될 수 있다는 총회장 목사님의 설교말씀처럼, 강인한 훈련을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매년 한 번씩 장성기도원에서 영성훈련을 하였는데 그때 금식하며 24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제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기도하는 목사로만 들어주셨고, 능력을 행하는 목사로 변화되었습니다. 여기 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며, 총회장 목사님의 가르침과 기도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2년 의정부교회로 발령받아 왔을 때 성전은 좁은 지하실에 있었고, 보증금 천만 원에 임대료 35만 원짜리 성전이였습

니다. 이때 목사님의 가르침대로 마음의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찍었습니다. ‘나는 지상으로 올라가리라!’ 40일 철야장정도 2번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지상 4층 70평짜리 건물을 사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깐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이 4층까지 올라가기가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다 보니 관절이 아프고 힘들다고 했습니다.

저는 또 마음의 내비게이션에 찍었습니다. ‘성전 건축하여 예배당 1층으로 꾸미리라!’ 찍고 기도하고 달려온 지 8년 만에 땅을 사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목회하는데 있어서 최고의 위기가 왔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님의 음성대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2년 전 교회보증금 천만 원에서 시작하여 지금 10억짜리 건물이 된 것 모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의정부교회와 저를 위하여 늘 기도해주신 총회장 목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여기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고 30년을 다시 뛰자하신 총회장 목사님의 새해 슬로건처럼, 1200명이 들어가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모두 새해 마음의 내비게이션에 소원을 찍고 열심히 기도하여 꿈을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의정부예수중심교회 박찬일 목사

생명의 면류관을 향하여



총회장 목사님이 초심으로 돌아가 30년을 다시 뛰자고 말씀하셨다. 목사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 보았다.

먼저 이렇게 비천한 사람을 우리 교단의 기둥이요 꿈나무인 중고등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리며 책임감을 느낀다. 눈망울이 초롱초롱한 학생들로부터 진실과 활력과 꿈을 보면서 오히려 더 배우고 격동하며 반세기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고 살아가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

을 수 없다. 비록 조그마한 경험과 지식과 믿음이지만,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에게 나눌 수 있을지 고민한다. 장차 중고등부 학생들이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삶이 변화되어 이 나라 각 분야에서 훌륭한 인재로 쓰임받기 위해 기도하고, 또 예수님의 향기를 발하길 기대한다. 작년 연말 주일예배 후, 총회장 목사님께서 몇몇 장로님들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박장로, 이제 건강해야 돼! 앞으로 30년 나와 같이 가야 돼.”라고 말씀하셨다. “네~ 목사님.” 하는 순간 마음이 찡했다. 사실 작년 초여름에 주님께 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다. 그동안 건강을 위해 운동한다는 것이 좀 무리한 모양이다. 항상 젊은 줄 알고 무리를 한 것이 건강을 해친 이유

였다. ‘조급과 무리는 자살 행위다’라는 설교 말씀이 가슴에 와 닿는다.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더욱 성숙하나 육신이 후퇴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모양이다. 이 시대 목사님이 자기 자신의 육신을 잘 관리하는 것은 주위사람을 위한 것이요, 영혼을 잘 관리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라는 말씀이 가슴에 와 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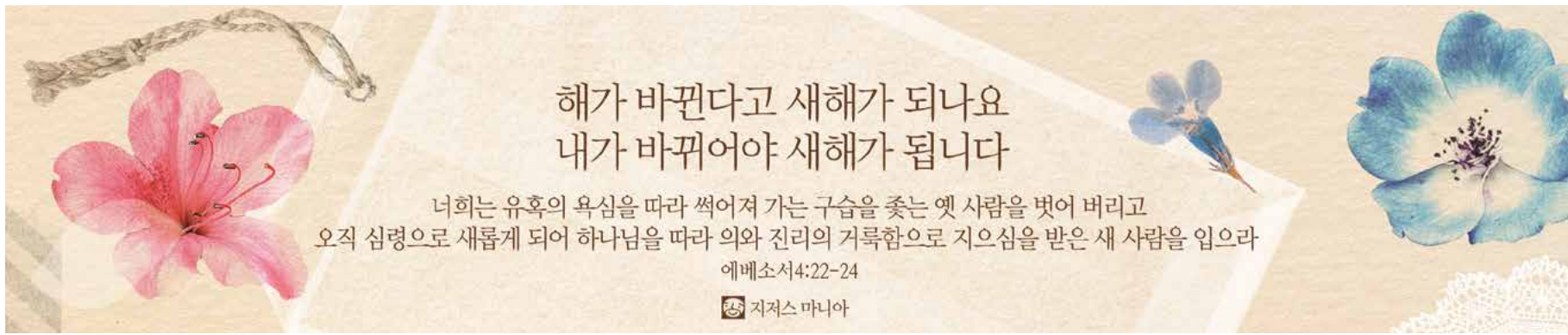
이제는 철심을 향해 달린다. 목사님과 30년을 같이 하려면, 내 자신을 점검하여 영·혼·육이 건강해야 할 것이라는 결론이다.

나는 6시에 기상하면 먼저 1시간 기도하고 잠시 말씀을 읽은 후 하루일과를 시작한다. 그리고 회사에 출근하면 업무를 점검하고, 자기계발을 위하여 끊임없이 EBS교육프로그램과 구

청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영자신문, 영어회화, 중국어 및 전자독서를 하면서 생활한다. 취침 전에 1시간 기도하면서 내가 한 약속을 지키고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하루를 정리한다. 사실 하루해가 짧다. 항상 시간을 아껴야 하는 마음뿐이다. 운동도 잊지 않는다. 건강을 위하여 계속해서 하루 1~2시간 스트레칭과 헬스를 한다. 물론 무리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다.

나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계2:10)는 이 말씀을 붙잡고 달릴 것이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과 함께 30년을!

서울예수중심교회 중고등부부장 박한규 장로





대전예수중심교회 수요예배를 다녀와서

“이역사의 평생에 이역사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이초석과 함께 있던 것 같이 이역사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이역사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지난 14일 대전예수중심교회에서 수요예배를 인도하신 총회장 목사님은 먼저 여호수아 1장 5~6절의 말씀에 대전교회 담임인 이역사 목사의 이름을 넣어서 낭독하셨다. 이에 대전예수중심교회 담임 이역사 목사는 아멘으로 화답했다.

이어진 말씀이다.

“이역사 목사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삶을 연구한 것처럼, 너의 스승인 나를 연구해야 한다. 모세의 삶을 따라간 여호수아처럼, 이역사 목사도 나를 따라야 같은 복을 누릴 수 있다. 나에게는 목회 30년의 노하우가 있다. 나를 연구하면 그것이 이역사 목사의 것이 될 것이다. 그 중 오늘 나는 몇 가지를 말하려한다.

먼저 두려움은 인류 최대의 적이요, 자신

감은 준비된 자의 것이다. 언제 두려움을 느끼는가? 자신감이 없을 때다. 실력이 없을 때, 지식이 없을 때, 가진 것이 없을 때, 사람은 두려움을 느낀다. 그러나 내가 실력과 지식, 능력을 갖추어 준비하고 있으면, 어디서든 무슨 일을 당해도 자신감이 넘친다. 그러므로 기술을 연마해야 하고, 경험을 쌓아 삶의 지식을 높여야 한다. 목사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했을 때 두렵지 않다. 내 일생은 기도의 일생이었다. 그것이 나를 세계 어디를 가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더욱이 귀신 앞에서도 당당케 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병어리 되고 귀먹게 하는 귀신 하나를 쫓지 못하고 두려워하자 예수님이 나서서 귀신을 쫓으셨다. 그리고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막9:29)고 말씀하셨다. 주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로 준비했기에 과감히 귀신을 쫓았던 것이다. 목사가 하루 기도하지 않으면 목사 자신이 알고, 이를 기도하지 않으면 가족이 알고, 사흘째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가 안다. 목사의 자신감이 떨어진 것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역사 목사도 나처럼 기도

의 일생을 살아야 할 것이다.

둘째로 사람을 잘 써야 목회가 순탄하고 교회가 안정되며 부흥할 수 있다. 요즘 경쟁력, 경쟁력 하는데, 경쟁력은 곧 사람이다. 내 목회 30년 동안 내가 선택한 사람들이 힘이 되어 주기도 했지만 내 걸림돌이 될 때도 있었다.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은 사람을 쓰는 일에 절대 조급하면 안 되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며, 똑똑한 사람보다는 진실한 사람을 택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강의 다리가 되어 준다. 명심해라. 다리가 부실하면 성수대 교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달란트대로 역할분담을 시켜야 한다. 대통령이 마을 이장의 일까지 볼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역할분담은 인체로 비유할 수 있다. 눈은 보는 역할이고, 귀는 듣는 역할이고, 발은 걷는 역할을 하듯, 교회 안에서도 각각의 역할을 해야 한다.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고 각자가 건강하면 건강한 육체가 되듯, 교회의 지체들이 각각 충성된다면 교회는 부흥하고 발전할 것이다. 그리고 목사는 일을 맡겼으면 믿어줘야 한다. 어떤 말을 들어도, 좀 늦게 반응해도 믿어줘야 한다. 장담이 울지 않는다고 잡아먹거나 팔아버리면 안 된다. 태생

이 장담이라면 언젠가는 울 것이니 기다려줄 줄 아는 것도 목사의 할 일이다.

또한 목사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를 잘 돌보아야 한다.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오셨음을 인지해야 한다. 더불어 권력 있는 자, 재력 있는 자, 학식을 갖춘 자도 그들에 맞는 대우를 해줘야 한다. 그들을 배척하면 일을 누가 하겠는가. 그래서 목사의 처신이 중요한 것이다.

나는 대전예수중심교회 이역사 목사와 성도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보았다. 오늘 의 말씀을 심비에 새기고 더욱 노력하고 더 큰 생각을 가지고 나간다면 이 대전은 대전예수중심교회의 밤이 될 것이다.”

대전예수중심교회는 활기가 넘쳤다. 이날 하얀 드레스를 차려입은 성가대가 우효원 작곡의 ‘여리고성과 여호수아’라는 대곡을 완벽하게 찬양하여 기립박수를 받았다. 예수중심교단 산하의 교회들이 일어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확실하게 감당할 때다. 그래서 어두워진 이 기독교계를 우리 교단이 깨워야 한다. 7년 만에 방문한 대전 예수중심교회를 보고 우리 교단은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신영서
jesus7857@gmail.com

나의 사랑 나의 목사님



남들보다 이른 시기에 결혼을 하여 젊은 나이에 큰 저택에 살면서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남부럽지 않게 살던 시절이 있었다. 그 시절, 나는 교회를 향한 곱지 못한 시선을 갖고 있었고 거기서 더해 교인들을 핍박하는 못된 인간이었다. 이앤티집에 세 들어 살고 있던 신학생과 노모를 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추운 겨울에 쫓아낸 적도 있었고, 집으로 전도하러 온 사람들에게는 뜨거운 물을 끼얹기도 했었다. 그런 나에게 “저 여자는 하나님이 빚어 놓기를 지옥으로 갈 인간으로 빚어놓은 여자이니까 복음의 소리는 죽을 때까지 귀에 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토록 못되고 지옥으로 떨어짐이 마땅했던 나에게도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남편의 서울 발령으로 이사를 가야했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살던 집이 팔리질 않았다. 집을 팔기 위해 유명하다는 굿판을 벌리기도 했고, 소고뼈를 사다가 문 앞에 걸어두기도 했고, 방마다 수 십 만원의 부적을 붙이며 시간과 돈을 허비하고 있었다. 그 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집 앞 교회를 찾게 되었고, 기도할 줄도 모르던 내가 ‘집 좀 팔아주세요.’라며 서투른 기도를 하게 되었고, 40일 새벽기도를 마치던 날 기적처럼 집이 팔렸다. 그리고 서울로 떠나기 전, 교

회 전도사님이 나에게 넘겨주셨던 “귀신추방” 테이프 1, 2, 3편은 남편과 나의 인생 전부를 바꿔놓은 계기가 되었다.

귀신추방 테이프 속 하얀 양복의 말라깽이 목사님은 한 쪽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귀신을 쫓고 계셨다. 병든 자들이 목사님의 안수를 받고 별떡 별떡 일어나는 모습은 나를 얼어붙게 만들었고,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도 할 말을 잃게 만들었다. ‘뭘지?’라는 생각으로 우리 부부는 하얗게 밤을 지새우며 여러 날을 보내다 목사님을 뵈기로 결정하였다. 우리는 이삿짐을 풀기도 전에 서울 올림픽 역도경기장을 찾았고, 우리 부부는 그때부터 파란만장한 굴곡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벨로드롬 경기장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던 남편은 목사님의 설교에 감동을 받고 3000명 전도를 하겠다고 서원을 하고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자가용 배터리에 커다란 TV를 연결하고 집 근처인 안산역으로 나갔다. 그 시절 우리 부에게 대기업의 기획실 과장 자리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고, 목사님을 따라서 전국 집회를 다니며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었던 시절을 살기도 했었다.

그러나 때로는 주님만 보고 따라가는 삶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날이면 날마다 시험에 들어서 허덕이던 시절도 있었고, 피눈물로 얼룩진 시간을 보내던 시간도 있었다. 그 때마다 목사님은 육신의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셨고, 냉랭해

진 우리의 심령을 사랑으로 녹여주셨다.

하지만 산이 높으면 골도 깊은 법. 목사님의 사랑과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죽음과 같은 고통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에는 교회를 떠나서 세상과 벗하며 살기도 했었다. 방황의 시간 속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알게 하신 목사님을 뒤로하고 다른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분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수년의 방황 끝에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목사님의 사랑 안으로 돌아왔다. 그분은 처음 만났던 역도 경기장의 그 모습 그대로 여전히 사랑하는 나의 목사님으로 지금도 환히 웃고 계신다.

가끔은 목사님에게 막내딸처럼 투정을 부리기도 하고, 친정아버지처럼 친근하신 모습에 격의 없이 다가가서 목사님을 놀라게 하기도 하지만, 나의 사랑되고 나의 영원한 목자 되신 그분의 사랑이 오늘 나의 신앙을 지키게 하는 원동력임을 알고 있다.

이년 전부터 실명의 위기가 찾아왔었다.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다. 그때마다 희망의 줄을 붙들 수 있었던 건 순전히 목사님의 사랑과 기도 덕분이다. 우리 목사님은 천성 가는 그 순간까지 나의 길을 밝혀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

나의 사랑, 나의 목사님!!

다시 시작하시는 30년 동안에도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건강하게 머물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서울예수중심교회 오자유 집사

내 마음에 실어

내 마음 실어서
나룻길에 태워
강물에 띄웁시다

내 마음 실어서
쪽배에 태워
바다에 띄웁시다

내 마음에 실어서
티끌에 태워
바람에 띄웁시다

내 마음에 실어서
당신에 태워
사랑에 띄웁시다

내 마음에 실어서
주님께 태워
천국에 띄웁시다

자네도 생각해 보게나

朋友